

말씀을 먹고, 말씀을 잉태하고, 말씀을 낳는 교회

누가복음 1:26-38



오늘 저는 한 소녀의 아주 짧지만 놀라운 고백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소녀의 이름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리아**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거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눅 1:38)

이건 단순히 “아... 네, 알겠습니다” 정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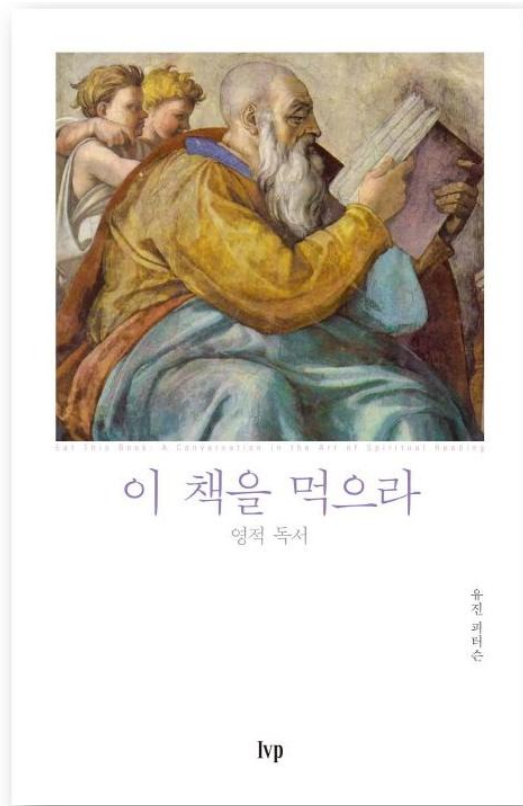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 안에 품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세상 속에 낳겠습니다.”

이런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멋진 건물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좋은 프로그램으로 세워지지도 않습니다. 단순히 사람이 많다고 교회가 세워지지도 않습니다.

말씀을 품고 말씀을 낳는 사람들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분석할 대상이 아니라 씹어 삼켜야 할 양식이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책을 먹으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분석할 대상이 아니라 씹어 삼켜야 할 양식이다.”

요한계시록 10 장을 보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를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입에는 달았는데, 먹고나니 뱃속은 쓰라렸다고 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읽고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씹고, 삼키고, 소화시켜서 내 몸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성경 공부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 혈관을 타고 흐르고, 내 삶의 세포 하나하나를 변화시켜서, 나를 통째로 바꾸는 생명의 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피터슨 목사님은 계속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사람들이 가장 소홀히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성경을 읽는 것과 연관된 일이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그것을 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며,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다는 말도

아니다. 바로 성경이 자신을 형성해 가도록, 즉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뜻이다.”

피터슨 목사님은 자신이 대학과 신학교 시절에는 달리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목사가 된 후에는 달리는 것을 그만두었다고 해요. ‘목사가 티셔츠하나 입고 동네에서 뛰는 걸 교인들이 보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그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보니까 의사, 변호사, 회사 중역들... 자기 또래 혹은 자신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서 뛰는 걸 보고는 용기를 내어 운동화를 샀답니다. 그리고 다시 달리기를 시작했대요. 그때가 서른다섯 살이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그냥 건강을 위해서였지만, 어느새 달리기는 그의 삶의 한 부분이 되었고, 매달 10km 대회, 1 년에 한 번 마라톤에도 나갔다고 합니다.

바람, 해, 비, 눈... 온몸으로 부딪히며 달리는 그 시간 속에서 **달리기는 운동이 아니라 자신의 묵상, 성찰,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고**, 따라서 달리기를 하면서 그의 몸과 영혼 전체를 깨우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 달리기에 관한 잡지와 책을 수없이 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자신이 부상을 입어서 두 달 동안 달리기를 못 하게 되었는데, 단 이틀 만에 달리기에 관한 글을 아예 읽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달리지를 읽으니까, 달리기에 관한 책을 읽고 싶은 마음도 완전히 사라졌던 거지요.

그런데 다시 달리기를 시작하니까, 또다시 읽고 싶은 마음이 살아났다고 해요.

그런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나는 ‘영적 독서’에서 ‘영적’이라는 말의 의미를 깨달았다. 영적 독서란 단순히 정보를 배우는 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참여하고 있는 것을 확장하고 심화하고 확증하기 위해 읽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경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성경에 대한 관심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말씀을 머리로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삶의 한절이라도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고, 붙들게 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읽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피터슨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텍스트(말씀 구절)에 대해 우리가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가?’가 아니라 ‘내가 무엇에 순종할 수 있는가?’이다.”**

순종의 작은 한 걸음 한걸음들이, 수많은 주석책을 읽고, 수많은 신학서적을 읽는 것보다 더 빠르게 우리 마음을 말씀 앞에 열어 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공부가 중요한 이유도 결국은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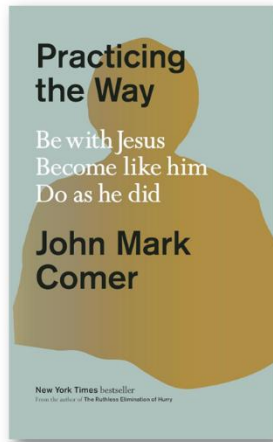
James Tissot, 「The Gathering of the Manna」 (1896-1902)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것을 살아내지 않는 것은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받았지만 그것을 먹지 않고 집에 보관해두는 것과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만나가 어떻게 되었다고 얘기합니까? 썩어서 먹지 못하게 된다고 얘기하지요. 우리가 영의 양식, 하늘의 만나를 받았을 때, 그것을

먹지 않으면, 그것을 살아내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 상태는 오히려 부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고, 소화시키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때, 그 말씀은 우리 안에 뿌리내리고, 살아 숨쉬며, 우리를 변화시키는 생명의 양식이 되는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변화될때, 내 가정이 변화되고, 내 교회가 변화되고, 내 직장이 변화되고,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John Mark Comer 목사님은 『Practicing the Way』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단순히 배우는 게 아니라, **연습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단순히 배우는 게
아니라, 연습하는
것이다.”**

여러분, 운동을 배울 때 책만 본다고 되나요?
피아노도 악보만 본다고 칠 수 없죠.
연습해야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에 설교 한 편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니,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듣는다고 해도, 들은 말씀을 하나라도 삶으로 연습하고, 몸에 새기고, 반복하지 않으면, 자라남이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은 지식이 아니라 **삶**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훈련,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데오토코스 훈련

Theotokos (데오토코스):

“하나님을 낳은 자”

“하나님을 품어 낳은 자”

→ 하나님의 생명이 세상에
들어오신 자리

저는 이것을 데오토코스
훈련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데오토코스 (Theotokos)란
그리스어로 “하나님을 낳은
자” 혹은 “하나님을 품어
낳은 자”라는 뜻인데요, 이
말은 서기 431 년 에베소
공의회에서 교회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붙인 공식 호칭입니다.

이 호칭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이라는 신앙고백을
담아내는 것도 있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요 1:14)라는
말씀처럼, 마리아의 태가 하나님의 생명이 세상에 들어오신 자리라는 뜻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데오토코스’가 된다고 말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우리의 삶으로
낳아내는 사람이 된다는 뜻을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데오토코스 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품고,
또 우리 삶 속에 낳는 훈련.

요 1:14

따라서 데오토코스 훈련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품고, 또 우리 삶 속에 낳는
훈련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고, 내 삶을 바꾸고,
세상을 바꿔나가는 능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데오토코스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삶으로 품는 연습입니다. 실천하는 훈련입니다. 그러한 작은 습관과 일상의 훈련을 통해 성령님께서서는 우리를, 또 우리 교회를, 그런 우리들을 통해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 가실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데오토코스 훈련 여섯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수도원 생활에서 그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어떻게 말씀이 열매 맺도록 할 수 있는가 연구하며 연습한 공동체로서 오늘 날 경건 훈련을 하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들로 부터 배울 수 있는 여섯가지를 오늘 간단하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모두 **S**로 시작합니다.

1) 순종 (Submission)

‘순종’이라는 단어... 솔직히 듣기만 해도 갑갑하죠. 왠지 지는 것 같고, 나약한 것 같고요.

우리는 내 권리를 지키려고 하고, 내가 내 삶을 통제하려고 하려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한테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데, 생각해 보면, 말씀을 잉태하는데 있어서 순종처럼 중요한 것이 있을까 싶습니다. 순종이 전제되어야만 말씀이 잉태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눅 1:38)라고 순종했지요.

그처럼 작은 순종이 큰 역사를 엮니다. 마리아처럼 지체 없이, 작은 것에도 “네”라고 반응하는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즉시 순종 Immediate Obedience

베네딕트 수도원에서는 순종의 완성은 **“그즉시 순종 immediate obedience”**이라고 가르칩니다. 순종은 머뭇거림이나 계산 없이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지체하게 되면 순간 자기 의지와 판단이 앞서게 되고, 그것은 곧 겸손과

복종의 훈련을 방해한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좀 이따가 할게요.’ ‘나중에 할게요.’ ‘생각해보고 할게요.’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하겠습니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순종에 대해 기억할 것은, 세상은 순종을 부정적으로 보는지 모르지만 성경적 관점에서 순종은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리처트 포스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주는 자유는 항상 자기 뜻대로 하려는 끔찍한 짐을 내려놓는 능력에서 옵니다. 순종 속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자유롭게 가치있게 여길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순종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운전하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끼어들면, “주여, 저분에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하면 어떨까요? 정말 쉽지 않지요. 하지만 그런 작은 순종이 큰 순종을 낳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순종 가운데 잉태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주 살아가시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주시는 작은 감동, 미세한 음성, 하나님의 부르심에 미루지 말고 즉시 실천하시는 순종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2) 단순함 (Simplicity)

수도사들은 “자신의 몸이나 뜻을 자기 마음대로 쓰지 않겠다”는 이유와 목적으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려는 삶의 실천을 헌신합니다. 그래서 수도원에서는 누군가가 무엇을 받으면 즉시 공동체 안에서 나눠야 하지요. 사유재산이 없습니다. 돈에 매이지 말고 단순하게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러한 단순함을 수도원 생활을 하지 않고도 실천했습니다. 유명세가 커질수록 존 웨슬리 목사님은 책 판매와 강연으로 큰 수입을 얻었다고 합니다. 한 때는 약 1,400 파운드의 수입이 있기도 했다고 하지요. 하지만 생활비는 항상 최소한으로 유지했고, 남는 돈은 가난한 이웃, 학교, 선교를 위해 다 나누었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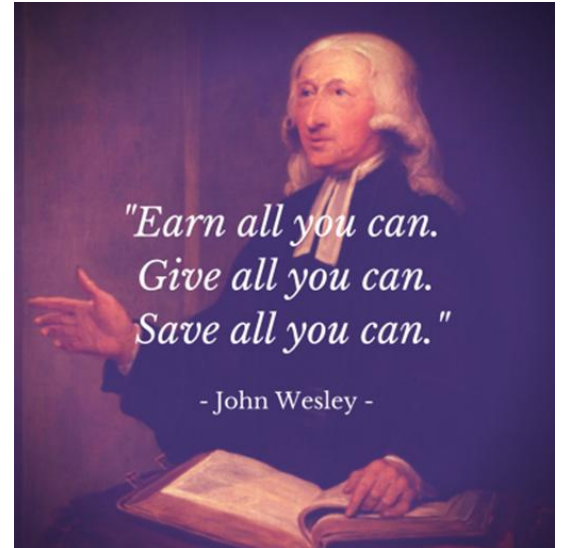
알려지기로는, 그분의 생애 동안 약 3 만 파운드 이상을 나누었다고 하고, 돌아가실 때는 단지 약 10 파운드의 재산만 남아있었다고 하지요. 그만큼 단순하게 살셨던 겁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경제관을 잘 드러내는 그분의 말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많이 벌고, 할 수 있는 한 적게 쓰고, 할 수 있는 한 많이 나누라. Earn All You Can. Save All You Can. Give All You Can.”

실제로 자신이 그렇게 사셨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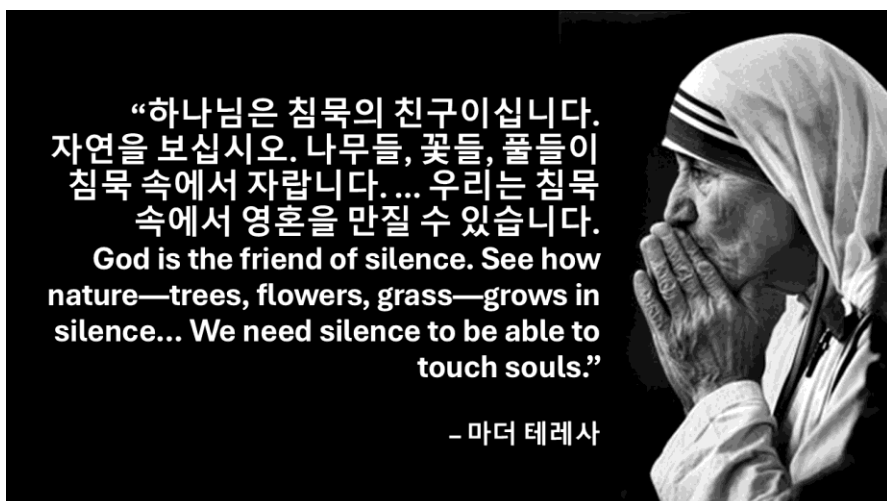
이번 주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단순함을 연습하며 살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장을 볼 때, 충동구매하려고 했던거, 혹은 불필요한 물건을 사는 것을 멈추고, 그 돈을 선교 헌금하는건 어떨까요? 아니면, 여러분 집에 있는 서랍장 하나 열어서, 그 속에 있는 물건 중에 필요없는거 도네이션 하면 어떨까요? 그 자리를 비워놓는건 어떨까요?



3) 침묵 (Silence)

요즘 세상은 참 시끄럽습니다. 유튜브, 인스타, 카톡 알림...등등 정말 정신없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잘 들을수 있을까요?**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의 친구이십니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 영혼을 만질 수
 있습니다. God is the friend of
 silence. See how nature—trees,
 flowers, grass—grows in
 silence... We need silence to be
 able to touch souls.”



침묵은 수도원의 오랜 전통 중 하나입니다. 베네딕트는 “침묵을 지키는데 열심을 내라”고 가르쳤습니다. 수도사들은 때로 며칠 동안 말을 하지 않는 금식을 실천한다고 합니다. 세상의 소음을 끄고, 침묵할 때, 우리 영혼 속에 비로서 말씀을 잉태할 자리가 생긴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침묵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또는 뉴스를 트는 것이 아니라, 시편 한 장을 읽고 3 분 동안 말없이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 한가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 고독 (Solitude)

수도사들은 공동체 생활을 하지요. 그들은 함께 먹고, 일하고, 예배하고, 잠도 같이 자지만 또한 그들은 많은 시간을 혼자서 보낸다고 합니다.

**홀로 있을 수 없는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도 건강할 수 없다.**

The one who cannot be alone,
 cannot be healthy in community.

- Dr. Lenny Luchetti

애즈베리 신학교 레니 루체티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홀로 있을 수 없는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도 건강할 수 없다. The one who cannot be alone, cannot be healthy in community.”

성경적인 고독은 고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을 갖는 시간을 가리킵니다. 나와 하나님 단둘이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지요. 그 속에서 깊은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주 무리에서 떨어져나와 홀로 기도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점심시간에 혼자 산책하며 “예수님”께만 집중하며 예수님과 도란도란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고독은 고립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둘이 데이트 하는 시간입니다.**

5) 간구 (Supplication)

다시 말하면, 기도입니다. 수도사들은 하루에 7 번 기도한다고 합니다. 기도 시간은 수도원 생활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새벽 3 시 15 분에 첫 기도를 시작으로 저녁 7 시 30 분에 마지막 기도까지 하루 일곱번 시편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2 주 동안 시편 150 편 전체를 노래하구요, 이렇게해서 1 년에 시편만 26 번을 읽는다고 합니다.

어떤 신앙인들은 이런 기도생활을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해야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기도 시간을 그렇게 많이 들일수 있냐는 것이지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기도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있을까요? 잘 생각해보면,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기도에 게으르지 않았습시다.

대표적으로 마틴 루터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I have so much to do that I shall spend the first three hours in prayer.”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먼저 세 시간을 기도로 보내야 한다.**”

기도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이언 바운즈 (E.M. Bounds)는 이렇게 말합니다.

“God shapes the world by prayer. The more praying there is in the world, the better the world will be.”

“하나님은 기도로 세상을 빚으신다. 세상에 기도가 많을수록 세상은 더 나아진다.”
그는 평생 새벽에 일어나 3~4 시간 기도하며, 또 수많은 기도 고전을 남긴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감리교 목사였던 새뮤얼 채드윅 (Samuel Chadwick) 목사님도 이렇게 말합니다.

“The one concern of the devil is to keep Christians from praying.”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삶이 아마 참 바쁠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바쁜 일상을 쪼개어 기도로 하나님께 머무는 시간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훈련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영적 무기입니다. 기도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 기도의 훈련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방법은 하루 일과 중에 군데군데 알람을 맞춰 놓고, 다니엘처럼 하루 세 번, 혹은 하루 일곱번, 잠깐이라도 멈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1 분이 될수도 있고, 10 분이 될 수도 있고, 30 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길수록 더 큰 능력이 임할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의 리듬 속에 하루를 살아가면, 하루 전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마귀가 우리 삶에 틈타지 못할 줄 믿습니다.

(지금 잠깐 기도합시다. ...)

6) 섬김 (Service)

끝으로, 섬김이 있습니다. 수도원 생활에서 섬김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보통 공동체 안에서 수도사들이 섬길때 의도적으로 사소하고 평범한 일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면, 섬김의 목적은 내가 칭찬을 받거나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안 될 것이구요.

진정한 섬김은 많은 작은 죽음들을
겪게 하는 자기 십자가의 길로
이끄는 것이어야 합니다.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섬겨야한다는 것이지요.

**진정한 섬김은 많은 작은 죽음들을
겪게 하는 자기 십자가의 길로
이끄는 것이어야 한다.**

리처드 포스터는 이것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섬김은 우리를 평범하고 사소한 일로
몰아넣는다.**”

요지은, 우리가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서 작은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 안의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가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일상 속에서 작은 일,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사랑으로 기꺼이 그것을 감당하는 것을 연습해보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가정이나 교회에서 ‘누구도 보지 않는 일’,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하나 먼저 해보시면 어떨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들키지 않아야 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둘만 아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 일이 뭐가 있을까요? 쓰레기 통을 비우는 일이 될수도 있구요, 화장실 청소가 될 수도
있구요, 컵 하나 씻어놓는 일이 될수도 있구요, 젖은 수건을 새 수건으로 바꿔놓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작은 섬김이 우리 가정 가운데 쌓일 때, 우리 교회 가운데 쌓일 때,
우리 세상 가운데 쌓일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움트고,
태어나는 아름다운 세상이 될 줄 믿습니다.

데오토코스 훈련

: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품고, 또 우리 삶 속에 낳는 훈련.

1. 순종 Submission
2. 단순함 Simplicity
3. 침묵 Silence
4. 고독 Solitude
5. 간구 Supplication
6. 섬김 Service

이렇게 데오토코스 훈련을 할 수 있는 여섯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이 있었지요? 순종, 단순함, 침묵, 고독, 간구, 섬김.

이 훈련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품고, 또 우리 삶 속에 말씀의 능력을 낳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멋진 건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낳는 사람들로** 세워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을 궁금해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몇번 읽었는지가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한 절이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는지가 그들에게 더 큰 복음의 능력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는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어 예배가 이곳에서 시작되어 모이기 시작한 지 이제 3 개월을 지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가 단순히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에 머물지 않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잉태하여 우리의 각 가정과, 직장과,
이 지역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낳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마리아의 고백을 우리
고백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
속에서 말씀을 잉태하게 하고, 새로운
생명을 낳게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먹고,
말씀을 잉태하고,
말씀을 낳는 교회**

**말씀을 먹고, 말씀을 잉태하고, 말씀을 낳는
스미스채플 한국어 예배 공동체...**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여러분
한분 한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묵상 질문

1. 나는 최근에 말씀을 단순히 ‘읽은 것’인지, 아니면 ‘먹고 소화한 것’인지 돌아보기 바랍니다.
2. 이번 주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작은 감동**에 지체 없이 순종할 것 한 가지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3. 내 일상 속에서 말씀을 품고 낳는 **작은 습관(6 가지 S)** 중 하나를 이번 주에 실천한다면 어떤 것을 할 것인지 결단해보시기 바랍니다.